

正祖의 『論語』論(Ⅰ)

- 『魯論夏箋』을 중심으로 -

鄭一均 *

■————《目 次》————■

- | | |
|--------------------------|---------------|
| 1. 序論: 正祖의 ‘君師’論과 抄啓文臣制度 | 1) 『魯論夏箋』의 構成 |
| 2. 正祖의 『論語』關係著述 | 2) 『魯論夏箋』의 內容 |
| 3. 『魯論夏箋』의 構成과 內用 | 4. 結論 |

1. 序論: 正祖의 ‘君師’論과 抄啓文臣制度

正祖[1752~1800: 본명은 李祿, 자는 亨運, 호는 弘齋萬川明月主人翁, 능은 健陵, 재위기간은 1776~1800]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개혁정치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왕권강화와 왕조의 중흥에 한 획을 그었던 군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는 즉위하면서부터 「繼志述事[先王의 뜻을 계승하여 政事を 펼]」와 「崇儒重道[儒學을 숭상하고 道學을 중히 함]」를 2대 시정지침으로 내세우는 가운데奎章閣을 중심으로 한 文治에 주력함으로써 조선후기의 掉尾的 盛觀인 文藝復興을 연출했던 당대 최고의 학자군주로 적극 평가되기도 한다.(鄭玉子, 1988: 58~101)

한편, 정조는 『尚書』「洪範篇」에 나오는 ‘皇極’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황극정치론’을 제시하는 가운데, ‘建極’으로 표현되는 英祖朝의 蕩平策을 계승하여 궁극적으로 ‘會極歸極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나아가 군주이면서 스승이었던 三代聖君들의 ‘君師’ 개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곧 정치와 학문의 주도자가 되는 ‘군사’의 지위를 자임하기도 하였다.(金文植 1996: 63~6) 이처럼 그는 군주권 강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혁의 완성을 통해 삼대의 이상정치를 당대에 구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포부를 구체화시켜 나간 바 있다.

정조의 이러한 정치적 포부는 일차적으로 ‘奎章閣의 설치’와 ‘抄啓文臣制度의 실시’로 구체화되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었다. 규장각은 이미 肅宗朝에 역대 왕들의 御製御書를 봉인하는 장소로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정조가 ‘계지술사’의 명분 아래 정치적 친위세력의 구축과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에 그는 규장각을 통하여 서적의 수집과 편찬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문화 사업을 실행하는 동시에, 특히 초계문신제도를 병설함으로써 인재양성에도 주력하였다. 초계문신제도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미 벼슬길에 나선 37세 이하의 젊고 품계가 낮은 堂下文臣 가운데서 議政府가 적임자를 선발하여 규장각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일종의 재교육제도로서, 정조 또한 이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후 재위기간 동안 사중여일하게 초계문신의 교육을 君師의 자격으로서 주관하는 가운데,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려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계문신제도는 1781년[正祖 5]부터 시작되어 1800년[正祖 24]까지의 2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선발된 인원은 모두 138명에 이르렀던바, 이렇게 선발된 초계문신들은 이후 정조의 문화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鄭玉子, 1988: 101~161)

상기한바 초계문신제도의 학술활동은 ‘講經[試講 課講 講義] 및 ‘製述[試製 課製]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무엇보다 ‘군신 간의 친밀한 학문공동체’가 형성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에 『魯論夏箋』을 통하여 그 편란을 살펴보면, 첫째, 초계문신제도가 ‘금기 없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학문토론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論語』의 經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관련하여 초계문신들에게는 당시의 지적 지형에서 가능했던 모든 문제제기가 허용되었고, 또 한 이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질의로 표명되기도 하였다. 즉 程子 및 朱子의 경전주석 그 자체에 대한 의문, 程子와 朱子 간의 견해차에 대한 논란, 『論語集註』와 『小註』·『朱子語類』·『朱子語錄』 간 논지의 불일치에 대한 논변, 초계문신 개인의 독자적인 부연설명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논어』의 經文 그 자체에 대한 논리적 이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기坦없이 거론되며 토론된 바 있다.

둘째, 초계문신제도는 ‘君臣 상호간의 격의 없는 학문적 충고와 격려의 장’이기도 하였다. 즉, 정조와 초계문신들은 적어도 배움을 추구하는 ‘학자’로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도타운 인간적 존중과 애정 어린 학문적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바, 이는 곧 “지금과 같은 酷暑에 더위 먹을까 염려된다”라는 “스스로 힘쓰고 또한 나를 권면한다고 하니, 이 역시 좋은 말이다. 내 비록 굳세지는 못하지만 ‘가르침이 있으면 善惡의 부류가 없게 된다[有教無類]는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니, 그대도 내게 제시한 설을 미루어서 더욱 힘쓰도록 하라. 이와 관련하여 다시 그대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그대는 선악의 부류로 볼 때 습성이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좋은 점은 더욱 배양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바로잡아, 이미 善을 회복하였으면 더욱 회복하고 아직 회복하지 못 했으면 빨리 회복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오늘 주고받은 글이 종이 위의 빈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면, 나에게도 다행스럽고 그대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잘 생각하라”¹⁾와 같은 정조의 진솔한 부탁이나, “질문한 말과 대답한 말이 모두 道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물며 대답한 내용이 더욱 준엄하고 정연하니, 기뻐할 만하다. 나더러 다시 말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답이 어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魯論』의 정밀한 뜻에 대하여 글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부분을 논한 지 수개월 만에 『衛靈公篇』에 이르렀는데, 그대의 말이 명쾌하고 절실하기가 이 조항 만큼 한 구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없었다. 그간에 얻은 풍요로운 소득을 대개 알 수 있으니, 기뻐할 만하고 경허할 만하다”²⁾라고 초계문신제도의 성과를 기꺼워했던 정조의 적극적 평기를 통하여 잘 간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정조 스스로 “抄啓文臣은 인재를 키워내려는 고심에서 비롯되었다. 20년 동안 시행하면서 아직 침으로 실효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대부분 教導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동안 책을 편찬할 때 검토해서 교정하는 작업은 대부분 그들에게 나누어 맡겼으니, 才才是 실로 비축하여 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³⁾고 회고한바, 내심 득의만만한 자부심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正祖의 『論語』關係著述

正祖의 ‘君師論’은 기실 그 자신의 당대 최고의 通儒이자 碩學으로서의 학문적 온축과 경륜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였던바, 이는 곧 『弘齋全書』라는 총 180권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문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논어』관은 이미 세손시절의 저술인 『春邸錄』을 필두로 『홍재전서』 각처에서 그 편린을 확인할 수 있으나, 특히 초계문신과의 講義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명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조의 대표적인 『논어』 관계저술로는 『經史講義』8~12(『論語』1~5, 『弘

1)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26b “恐或中喝 於如今流金焦土相似時候”;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6a “自勦而勉吾 此亦好語 吾雖不武 欲效「有教無類」之訓 子亦推來示之說 益勦之也 因有更告於子者 子於善惡之類 習性何居 因其長處 而益培之 因其次處 而益矯之 已復則益復 未復則亟復 今日往復 不歸於紙上空言 吾有幸而子亦與有幸 念之念之.”

2)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5b “問說答語 俱皆不離於道 况所答尤峻整 可喜 使吾更爲之說 其答 豈外於是”;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3b “魯論精義 往復說難 今焉爲屢箇月 至衛靈公篇 而來說之明快眞切 未有若此條鎖結一句語 其間所得之富 有蓋可知矣 可喜可賀.”

3) 『日得錄』9(『弘齋全書』, 卷169), p. 40b “抄啓文臣 出於作成之苦心 行之二十年 未必其真有實效 而今則滿朝 多是教導中人 而前後編書之役 分授考校 多賴其力 人才僅不可不儲養.”

齋全書, 卷71~75)와 『魯論夏箋』1~4(『弘齋全書』, 卷122~125)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초계문신제도가 시작된 1781년[正祖 5]부터 1787년[正祖 11]까지 정조가 『논어』의 經義와 관련하여 내린 질문[御製箋詁] 및 이에 대한 초계문신들의 답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초록하여 편집한 책이다.⁴⁾ 한편, 후자의 경우는 1799년[正祖 23] 여름 초계문신 徐俊輔[1770~1856; 號는 寧野]가 『論語集註』의 전 20권 총 498장 가운데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 167장을 선별하여 그 경의를 논하며 질의한 것에 대하여 정조가 차례대로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서, 정조의 『논어』관의 일단이 비교적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으로 하여 그의 만년의 경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이라 하겠다.

3. 『魯論夏箋』의 構成과 内容

1) 『魯論夏箋』의 構成

상기한 바대로, 正祖의 『魯論夏箋』은 그의 『논어』 관계저술 가운데서 만년의 경학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저술로서,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비록 제목은 달지 않았으나 일종의 ‘序說’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정조는 ① 자신의 호학적 태도, ② 『노론하전』의 편찬경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⁵⁾ 한편, 뒷부분은 초계문신 서준보가 『논어집주』의 경의를 논하면서 제기한 질문 및 이에 대한 정조의 답변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노론하전』의 ‘本論’을 구성한다.

4) 보다 구체적으로, ① 『經史講義』8(『論語』1, 『弘齋全書』 권71)은 辛丑年[1781, 正祖 5]의 李時秀, 洪履健, 李益運, 李宗燮, 李顯默, 朴宗正, 徐龍輔, 金載贊, 李祖承, 李錫夏, 洪仁浩, 曺允大, 李魯春 등의 대답을, ② 『經史講義』9~10(『論語』2~3, 『弘齋全書』 권72~3)은 癸卯年[1783, 正祖 7]의 李顯道, 鄭萬始, 趙齊魯, 李勉競, 金啓洛, 金熙朝, 李崑秀, 尹行恁, 成種仁, 李晴, 李翼晉, 徐澄修, 沈晉賢, 申馥, 李儒修, 姜世綸 등의 대답을, ③ 『經史講義』11(『論語』4, 『弘齋全書』 권74)은 甲辰年[1784, 正祖 8]의 李書九, 鄭東觀, 韓致應, 韓商新, 李亨達, 洪義浩, 韓興裕 등의 대답을, ④ 『經史講義』12(『論語』5, 『弘齋全書』 권75)는 丙午年[1786, 正祖 10]의 鄭旼錫, 宋祥廉, 張錫胤 등의 대답 및 丁未年[1787, 正祖 11]의 尹永僖, 尹光顯, 李義觀, 申澈 등의 대답을 각각 초록하고 있다.

5)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a “予嗜於談經, 若芻豢之悅也……顧予拙於經義且久, 以其無起予者也。時夏少事, 日晷如年, 正有契於麗兒之旨, 遂將魯論七篇, 與之質難而往復焉, 費若干日而完一帙矣。予聞不息, 易之乾象也; 作人, 詩之旱麓也。此可謂樂此不疲, 故既衷其錄, 命其書曰: ‘魯論夏箋。’”

<표 1> 『論語集註』와 『魯論夏箋』의 構成 및 内容 對照表

書名 構成	『論語集註』			『魯論夏箋』		비고
序	「序說」			「序」		無題目
本文	卷1	「學而」第1	16章	卷1 【弘齋全書】 卷122】	「學而」篇 (第1,2,4,5,7,8,10,12,13,14章)	
	卷2	「爲政」第2	24章		「爲政」篇 (第2,4,7,9,10,14,16,18,23章)	
	卷3	「八佾」第3	26章		「八佾」篇 (第1,4,6,7,8,9,11,13,15,17,19,20,2,23,25章)	
	卷4	「里仁」第4	26章	卷2 【弘齋全書】 卷123】	「里仁」篇 (第2,5,6,9,10,13,15,17,21,26章)	
	卷5	「公冶長」第5	27章		「公冶長」篇 (第4,5,8,10,12,15,18,21,23,25章)	
	卷6	「雍也」第6	28章		「雍也」篇 (第1,2,5,9,10,16,18,19,20,25,28章)	
	卷7	「述而」第7	37章		「述而」篇 (第3,5,6,10,13,14,18,25,27,33,36章)	
	卷8	「泰伯」第8	21章	卷3 【弘齋全書】 卷124】	「泰伯」篇 (第3,5,8,13,14,16章)	
	卷9	「子罕」第9	30章		「子罕」篇 (第2,4,7,10,13,16,18,23,28章)	
	卷10	「鄉黨」第10	17節		「鄉黨」篇 (第1,2,8,10節)	形式은 1章으로 構成됨
	卷11	「先進」第11	25章		「先進」篇 (第1,3,11,13,15,19,23,25章)	
	卷12	「顏淵」第12	24章		「顏淵」篇 (第1,6,7,9,12,17,20,24章)	
	卷13	「子路」第13	30章		「子路」篇 (第3,4,8,10,16,20,24,27章)	
	卷14	「憲問」第14	47章		「憲問」篇 (第2,5,8,13,17,20,25,26,33,36,41章)	
	卷15	「衛靈公」第15	41章	卷4 【弘齋全書】 卷125】	「衛靈公」篇 (第1,5,8,10,16,17,21,24,28,31,32,38章)	
	卷16	「季氏」第16	14章		「季氏」篇 (第2,4,7,10,11章)	
	卷17	「陽貨」第17	26章		「陽貨」篇 (第2,5,8,15,16,19,24章)	
	卷18	「微子」第18	11章		「微子」篇 (第3,5,8章)	
	卷19	「子張」第19	25章		「子張」篇 (第3,5,10,12,19,20,23章)	
	卷20	「堯曰」第20	3章		「堯曰」篇 (第1,2,3章)	形式은 1章으로 構成됨
총계	總20卷	總498章	總4卷		164章	

2) 『魯論夏箋』의 내용

<표 1>에서 나타난 바대로, 정조는 『노론하전』에서 초계문신 서준보가 『논어집주』 가운데서 167장을 나름대로 선별하여 경의를 논하며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君師’의 입장에서 빠짐없이 답변하며 평가를 내리고 있는바, 결국 이를 통하여 정조는 자신의 『논어』에 대한 경학적 입장 및 학문적 온축의 일단을 유감없이 제시·발휘하고 있다. 이에 그 전체적 내용을 대략 항목별로 나누어보면, 정조의 ①『論語』論, ②‘聖人’論, ③‘學問論, ④‘倫理論, ⑤‘禮樂論, ⑥‘政治’論, ⑦‘經傳解釋態度’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론하전』 가운데서 정조의 『논어』관 및 경학적 입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帝王學的 『論語』觀의 表明

正祖는 『魯論夏箋』에서 『論語』의 전체요지, 각 편의 요체, 『논어』의 筆法 및 讀法 등에 대한 일련의 독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군주’의 입장에서 이해·제시하고 있는 『논어』관이라 할 것이다. 첫째, 정조는 초계문신들에게 『논어』의 독법과 관련하여 “『논어』에는 글자마다 글자의 뜻이 있고 句마다 句의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논어』를 읽을 때는 장 안의 은미한 뜻을 터득해야 하”며, “독서함에 있어서 심신을 다해 세심하게 살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느 책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논어』를 읽을 때는 이 점에 더욱 노력을 배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무릇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답변에 자신의 몸을 그 곳에 있는 것으로 설정해 놓아, 내 몸이 夫子를 곁에서 모시고 있는 것처럼 하며 夫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묵묵히 이해하고 깊이 음미하며 言辭와 容貌 사이에서 氣象을 얻어야만 비야호로 聖人을 잘 관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절실히 묻고 가까운 곳부터 생각하는[切問近思] ‘實地工夫’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정조 역시 이러한 바탕 위에서 평소 온축해왔던 자신의 帝王學的 『論語』觀을 나름대로 설파하고 있다. 이에 그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① “나는 『논어』의 첫 장[「學而」篇 ‘學而時習之章 필자 주]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미한 뜻을 단번에 환히 깨닫기나 한 듯이 손을 들썩거리고 발을 구르게 된다. 일찍이 세 절을 깊이 연구해 보았는데, 『大學』의 工夫와 功效, 『書經』의 心學과 政事, 『周易』과 『詩經』의 깊고 은미한 뜻이 모두 이 한 장 안에 있다. ‘배우고 때

6)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1ab “論語則字有字義。句有句義。……故學者讀……論語，則得之於章內之微意。”；『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0b “讀書體貼身心看，何書不然。而讀論語，尤不可不倍加此工。凡有一問一答，設以身處其地，使吾身如侍夫子之座，如聽夫子之言。默識而深味之，得氣象於言辭容貌之間，然後方可謂善觀聖人。”

때로 익힌다[學而時習]’는 것은 明明德의 공부로서, 잘 익히면 至善에 그치는 공효가 드러나게 되니, 殷나라의 高宗이 배우는 데 힘쓰고 奉임금이 큰 덕을 밝히신 것이 이것이다.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朋自遠方來]’는 것은 新民의 공부로서, 그 즐거워하는 곳을 말하면 至善에 그치는 공효가 드러나게 되니, 『書經』『大禹謨』의 ‘文德을 닦아 이르게 한 것[修文德以來之]’과 『詩經』『鄭風』『女曰』편의 ‘그대를 오게 하신 분임을 알진댄[知子之來之]’이란 것이 이것이다.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는대[不知不懶]’는 것에 이르면 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여 至善에 그치게 되는 極工과 能事が 끝나는 것이다. 『周易』에서 말한 ‘龍의 德을 지닌 채 묻혀있는 자라는 것이다’이다. 우리 夫子는 潛龍勿用의 지위에 처하여 참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덕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것이 실로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는 것이 潛龍이다’라는 것으로, 오직 우리 夫子만이 이에 해당된다⁷⁾는 주장, ② “聖人의 門을 보면 실로 형용하거나 옛보아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천만 마디 말씀이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아서, 필경에 지극히 정미한 의리는 그 오묘함이 神의 경지에 들고 中正의 이치는 皇極이 되는 것으로 彙繩된다. 배우는 자가 여기에서 『春秋』의 깊은 뜻을 『논어』의 은미한 말에서 구하기도 하고, 『논어』의 실마리를 인하여 『춘추』의 支派를 탐색하기도 하여 유별로 취하여 보고 체득해낸다면, 오랫동안 힘쓰는 사이에 반드시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되어 거의 자득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라는 통찰이나 “「八佾」篇 26章은 모두 禮樂에 관계된 일을 말한 것이니, 나는 이 한 편을 ‘素王[孔子: 휠자 주]의 一部 禮樂志’라고 생각한다”⁸⁾는 인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정조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① 평소 제왕학의 요체로서 중시한바 『대학』 뿐만 아니라, 『시경』, 『서경』, 『주역』, 『춘추』 및 ‘소왕의 예악지’[이는 『禮記』와 『樂記』를 함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로 대표되는 ‘六經과의 포괄적 관련성 속에서 『논어』를 제계적이고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② 특히 군주의 입장에서 ‘新民’으로 대표되는 治國 및 平天下의 측면과 더불어 ‘皇極’으로 상징되는 왕권강화의 맥락을 은연중 부각시키는 가운데 『논어』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겠다.

7)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ab “吾讀論語首章, 不覺手舞足蹈。若將聲入心通, 盖曾沈潛玩鑽於首尾三節, 大學之工夫功效, 尚書之心學政事, 與夫易詩之奧旨微義, 盡在於此一章。其曰: 「學而時習」者, 明明德工夫, 善習之則止至善之效著焉, 殷宗之典于學, 唐堯之明峻德也。其曰: 「朋自遠方來」者, 新民之工夫, 言其樂處, 止至善之效著焉, 禹謨之修文德以來之, 齊[鄭]의 誤字: 휠자 주]風之知子之來之也。其曰: 「不知不懶」云, 而明德新民, 所以止至善之極工能事畢矣, 大易所謂龍德而隱者也, 有是哉! 吾夫子處潛龍勿用之地, 實有不見是而无悶之德, 此誠確乎其不可拔潛龍也, 其惟吾夫子當之。”

8)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2ab “故觀於聖人之門, 固難形容窺測, 而千言萬語之同而異二而一, 畢竟歸趣, 卽不過至精之義, 其妙入神, 大中之理, 惟皇作極, 學者於此, 或以春秋之奧旨, 求之於論語之微言, 或因論語之緒餘, 罷之於春秋之支裔, 類聚看之, 體認出來, 用力之久, 必有璇窺, 庶乎有自得處, 且况八佾篇凡爲二十六章, 皆言禮樂之事, 此一篇, 吾以爲素王之一部禮樂志云耳。”

(2) 親程朱學의 經學觀의 闡明

초계문신 徐復輔는 正祖에게 『論語集註』의 심층적 인식과 관련된 일련의 다양한 질의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정조의 批答과 教正을 요청하고 있는바, 즉 『논어』 經文[大文] 자체에 대한 논리적 이해의 문제, 朱子의 주석에 대한 의문, 程子와 朱子 간의 견해차에 대한 논란, 『集註』와 『小註』·『語類』·『語錄』 간 논지의 불일치에 대한 논변, 독자적인 부연설명의 제기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서준보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정조는 원칙적으로 “『집주』가 나온 뒤에 祭禱의 의미가 비로소 상세하게 밝혀졌다.정자와 주자 두 선생 이후로 어그러지지 않고 현혹되지 않은 定論이 있었으니, 이에 한 점의 사사로움도 없는 大義가 해와 별처럼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두 선생의 위대한 功烈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빛나 孔夫子와 아름다움을 짹한다고 생각한다. 아, 융성하고 위대하도다⁹⁾라고 극구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경학적 입장의 기본방향이 ‘程朱學의 옹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은 정조의 親程朱學의 經學觀은 『노론하전』에서 다양한 형태로 천명되고 있다. 이에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조는 무엇보다 주자에 대한 지극한 敬慕의 마음을 일관되게 표명하였던바, 물론 이러한 그의 태도는 “朱夫子가 천년이 지난 후에 孔夫子의 말씀을 하나하나 밝혀낸 것이 過化存神의 오묘함을 깊이 알았다”거나 “주자가 지은 『克齋記』는 더욱 좋다.『논어』 이후에 「국재기」만이 孔夫子의 本意를 밝혀낸 것이다. 여기에서 더욱 朱夫子가 孔子 이후에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러르게 된다”¹⁰⁾는 경학적 인식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조의 인식은 심지어 ‘朱子는 곧 聖人’이라는 입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던바, 이는 곧 “나는 朱子야말로 진정한 聖人이라고 생각한다”, “朱夫子의 聖은 孔夫子의 聖과 같아, 한마디 말이 천하만세의 법칙이 된다.孔夫子와 朱夫子는 하늘이 있는 것과 같고 땅이 있는 것과 같음을 더욱 깨닫겠다”, “대저 주자는 공자 이후의 가장 훌륭한 분이다. 온축함은 땅을 짚어지고 바다가 적시는 것처럼 풍성하였고, 권위는 흡사 생동하는 용이나 날뛰는 호랑이 같아, 큰 것을 말하건 작은 것을 말하건 변화가 무궁하였다”¹¹⁾는 등의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 상기한바 ‘朱子는 곧 聖人’이라는 정조의 입장은 당연히 일견 ‘교조적인 程朱學 승배의 태도’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즉, 그는 ① 정주학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 입장과 관련하여 “내가

9)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33a “集註既出, 緯義始詳。.....且程朱二先生以後, 有不悖不惑之定論, 於是乎一天之大義, 昭如日星。吾以爲二先生之豐功偉烈, 軒天耀地, 匹休而齊美於孔夫子。猗歟盛矣哉大矣哉!”

10)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9a “朱夫子於孔夫子之言, 一—發明於千載之後, 深得過化存神之妙, 其功誠與夏禹同期待。”;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7ab “朱子所著克齋記, 尤好尤好。.....論語以後, 惟克齋記發明孔夫子本意。於此, 益可仰朱夫子之後孔子, 只是一人。”

11)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2b “吾則曰:「朱子, 眞聖人。」”;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7b “朱夫子之聖, 如孔夫子之聖。一言爲天下萬世則。.....益覺孔夫子與朱夫子, 如有天有地。”;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8b “大抵朱夫子, 後夫子一人也。.....貨積富如地負海涵, 權威恰如生龍活虎, 語大語小, 變化無窮。”

외우는 바는 朱子의 말이다”, “程朱 등 諸賢이 모두 그 말에 따라 주석을 내고 깊이 배척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굳이 異論을 제기하겠는가?”, “나는 程夫子와 朱夫子의 註解를 진실로 공경하고 독실하게 믿을 줄 알뿐이다. ……나는 정자와 주자 두 夫子의 가르침에 대해 본디 異意가 없다”¹²⁾는 등의 자세를 반복적으로 천명하였고, ②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초계문신을 포함한 後學의 당위적 학문적 태도로서 “朱子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朱子의 설로 돌아가야 한다”라든가 “朱子의 正論이 이미 나온 이상, 우리 같은 후학이 어찌 감히 그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는가?”¹³⁾라고 거듭 경계하는 가운데, ③ 『논어』를 필두로 한 여타 경전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해서도 “『집주』에 실린 程子의 학설로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배우는 자에게 의당 이로움이 있을 것”¹⁴⁾이라 하여, 특히 『집주』 및 程朱의 주석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기본방향 및 그 결과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으며, ④ 이에 따라 후학이 經文 자체 및 程朱의 주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孔子와 朱子의 논의가 이와 같았으니, 절대로 비껴질 수 없는 논의라 할 만하다. 그런데 어찌 별도로 의론을 내어 장황하게 밀하여 저돌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극히 온당치 않다”¹⁵⁾는 식의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비에 대한 관건적 판정기준으로 程朱의 주석을 거듭 강조하였던바, 곧 “朱子의 『章句』에 어찌 감히 수정을 가하겠는가?”, “大旨의 定論이 있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朱夫子의 正論이 있다”, “반드시 朱子의 말과 같은 다음이라야 비로소 義의 中道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朱夫子의 定論이 있다”¹⁶⁾ 등의 반복된 교시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정조의 학문적 자세는 자연스럽게 ① 陸王學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었고,¹⁷⁾ ② 이외에도 魏徵[580~643: 字는 玄成, 唐나라 때의 名臣], 韓愈[763~824: 字는 退之, 號는 昌黎, 唐나라 때의 經學家], 王安石[1021~1086: 字는 介甫, 號는 半山, 北宋 때의 經學家], 呂大臨[1040~1092: 字는 與叔, 號는 藍田, 北宋 때의 經學家], 呂祖謙[1137~1181: 字는 伯恭, 號는 東萊, 南宋

12)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0b “吾之所誦者, 朱子之說也”;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23b “然而程朱諸賢, 皆因其說而註釋之, 未嘗深斥之, 則吾何必更有斷斷耶?”;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9b “吾則惟知程夫子朱夫子之註解, 敬之信而守之篤. ……於是乎吾於程朱兩夫子之訓, 固無間然.”

13)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3a “後於朱子者, 但當以朱說爲歸”;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8ab “朱子正論, 既出之後, 如吾後學, 何敢可否容說於其間乎?”

14)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5a “若以集註程子之說, 思量推究, 則學者當有所益.”

15)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7b “故孔朱之論如比, 可謂移易不得. 何可別生議論, 拖長爲說, 便若有突過底意思, 極未安.”

16)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9a “朱子章句, 何敢雌黃?”;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37a “既有大旨定論, 無事乎更說”;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5a “朱夫子已有正論.”;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29a “必如朱子說, 然後始可謂得義之中矣”;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36a “自有朱夫子定論.”;

17)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5ab “大抵讀書之法, 起疑固好, 公然難以曲見淺智, 務欲架鑿撈巧, 則所謂闖揮集註餘意者, 反歸於象山門徒改時習爲不習之妄議經傳, 須深念之”;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42b “所喻陽明說, 辨析儘是.”

때의 經學家], 陳傅良[1137~1203: 字는 君舉, 號는 止齋, 南宋 때의 經學家], 黃榦[1152~1221: 字는 直卿, 號는 勉齋, 南宋 때의 經學家], 許衡[1209~1281: 字는 仲平, 號는 魯齋, 元나라 때의 經學家], 薛瑄[1389~1464: 字는 德溫, 號는 敏軒, 諱號는 文清, 明나라 때의 經學家], 汪份[淸나라 때의 經學家] 등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평하와 거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⁸⁾

(3) 切問近思的 實地工夫의 強調

正祖는 『魯論夏箋』에서 초계문신 서준보와의 지속적 문답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 높은 경학적 온축을 설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특히 ‘君師의 입장에서 ‘학문하는 자세’와 관련된 자신의 독자적 식견을 훈계의 형태로 제시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즉, 그는 우선 학문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 관점을 파악한 다음, 이러한 바탕 위에서 초계문신들에게 요구되는 당위적 학문태도를 거듭 역설한 바 있다.

이에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조는 자신의 학문관의 요체 및 공부순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바, 즉 ① “학문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는 등 당연히 행해야 할 당연한 도리에 지나지 않는 것”¹⁹⁾으로서, ② “지극히 원대한 것도 실제로 지극히 가까운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根本을 회복하는 공부는 매번 末節로부터 힘을 쓸어야 한다”²⁰⁾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로써 그는 ‘德性知’ 중심의 전통적인 유교적 학문관을 원칙적으로 고수하였다.

18)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1a “大抵平時之臯雙稷契, 卽亂世之龍逢[‘逢’의 誤字: 필자 주]比干也。魏徵之說, 未免妄發”;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4a “蓋周子因用而名其體, 韓氏認用而爲其體, 曰字與之謂字, 其指懸殊”;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9a “王介甫之論, 難乎免於文人之好奇”;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7a “且天下歸仁之說, 程夫子則以爲事事皆仁, 天下歸仁, 是說實事也; 吕與叔則以爲天下之事, 無一箇之不仁, 是虛見也”;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7a “呂成公居浙江, 主張四學, 此浙學之所以見黜於朱子者, 況如陳傅良撰[‘橫’의 誤字: 필자 주]浦之學耶? 須看朱書百選答陳同父書也。”;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4a “大抵言本, 質在其中; 言質始在其中, 根與體皆然, 何可滯看本一字, 又於本一字, 區別大本始本, 如勉齋之說? 是所謂訓詁之學, ……不但反晦聖訓, 從而有害經義, ……曷若因其舊觀, 守而勿失之爲寡過”;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9b “許魯齋以後學者生下來許多枝葉, 甚至存疑等書出, 而有九思動時工夫之說, 誤人至此, 可歎可歎”;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1ab “孔子言成就, 朱子言才質, 卽薛文清之論, 都不如朱子所謂‘失中則一也’之爲得聖旨矣”;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8b “似此閒界工夫, 所謂汪份輩啓之也”;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6b “慎勿看汪訂四書頭註”;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8b “忽以永樂羣儒據據之本, 看作此外無他正論, 而提問之者, 尤可謂未深量之甚者”;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2b “程朱未嘗如此說到, 而汪氏忽爲此說, 後人從以仰之如師訓, 此等處須着眼看”;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8a “季札云云, 亦出於汪訂之頭註, 子乃得之, 以爲奇貨, 是朱子所謂‘不見天理本原, 没汲以就功名者’也。”

19)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7a “學非別件事, 卽不過爾事父遠事君, 當行當然底道理, 則外此豈有那箇甚般學行耶?”

20)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0b “其云: ‘立志則在高遠, 爲學則先卑近’, 是矣。……以至爾方至遠, 不啻如公孫丑所謂登天然者, 至遠實未嘗外於至遙之中, 此意又不可不知”;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7b “反本之工, 每自末節致力。”

둘째, 이러한 인식하에 정조는 무엇보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곳부터 생각하는 공부’[切問近思之工]를 강조한 바 있다. 즉, ① 그의 “經書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모름지기 자신의 눈앞의 일을 바로 잡듯이 해야만 학문의 공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든가, “그대가 급하지도 않은 疑義를 불쑥 언급한 것은 이 어찌 실질적인 공부[實地工夫]에 보탬이 되겠는가?”, “이렇게 긴요하지 않은 文義는 한갓 수를 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모든 저렇게 모든 身心의 공부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²¹⁾라는 비답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즉각적인 ‘실천지향적 實地工夫’를 강조하는 가운데, ② “이 질문은 절실히 묻는 뜻[切問之義]에 더욱 위배됨이 있으니, 떼버리는 것이 본디 옳다”, “인용한 『語類』의 여러 설은 모두 절실히 묻고 가까운 곳부터 생각하는 공부[切問近思之工]가 아니니, 모름지기 비슷한 설을 끌어다 붙여 공연스레 쓸 데 없는 말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공부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대의 설은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니, 어찌 절실히 묻는 뜻[切問之意]이 있겠는가?”, “『說叢』과 『四書蒙引』의 설을 이렇게 인습해서 남을 계발시키는 좋은 뜻이 어디 있겠는가? 朱子가 일찍이 潘叔昌의 편지에 답하기를 ‘일종의 의론은 더욱 수준이 낮고 편협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요사이 經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겠다”라든가 “毋와 無는 또한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의미가 현격하게 다르다. 無는 聖人이 일이고 毋는 배우는 사람의 일이다. ……毋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니, 범범히 ‘審欲’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것은 도리어 절실히 못한 병통이 있다”²²⁾라는 등의 경계를 반복하고 있으며, ③ 이러한 맥락에서 정조는 별다른 학문적 문제의식 없이 상투적이고 한가한 담론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였다. 즉, “그대의 설에 ……세 단계로 변론한 것은 한 가지 설이 되기에는 해롭지 않지만, 聖訓의 본뜻[聖訓本旨]과는 절실히 들어맞지 않으니, 한가하게 엉뚱한 생각이나 한대[別生閒意]고 할 만하다”, “지금 이렇게 운운한 것은 세속에서 이른바 밤상 밑에서 수저를 얹는다는 격이니, 이런 講義는 애당초 글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소간의 計較는 모두 쓸 데 없는 헤아림[閒商量]이고 긴요하지 않은 말[沒繁要說]이니, 모두 그대의 주장과 같지 않다”라든가 “그대의 說은 일이 없는 가운데서 공연히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無事中覓出有事]이라고 하겠다. 어찌

21)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35a “而讀經書究解，須如辨正自家眼底事，然後可以爲益於問學之工。”;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5a “則來說之撫及不急之疑義，是豈有益於實地工夫耶？”;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p. 20b~21a “似此沒窮關文義，徒歸尋數之科，如是看如皮看，從左看從右看，有何爲益於身心之工耶？”

22)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9a “此問尤有違於切問之義，顧之固可。”;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26b “所引語類諸說，皆非切問近思之工，須勿牽連類聚，公然作閒說話也。不惟妨工，恐或中喝，於如今流金焦土相似時矣。”;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0b “來說非疑義，卽註釋步韻，曷嘗有切問之意耶？”;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b “說叢蒙引之說，若是循襲，有何發人好意思耶？朱子嘗答潘叔昌之書曰：‘一種議論，逾見卑狹，令人擡頭不起，吾於近日經學諸人亦云。’”;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9b “毋與無，亦有二義，相去遠甚。無字，聖人之事；毋字，學者之事。……毋之當自毋自欺始，泛言審欲二字，反見其不切之病也。”

깊이 연구하고 묵묵히 깨닫지 않고 공연히 쓸데없이 말[問漫語話]을 낭비하는 것인가?”²³⁾ 등의 질책이 바로 그것이다. ④ 결론적으로, 정조는 특히 ‘문제의식의 표절’을 경계함과 아울러 ‘학문의 진정성’ 또한 각별히 강조하였던바, 이는 곧 『小註』 및 『語類』에는 잡다하게 기록해놓은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른바 ‘의심이 들어 묻는다’는 것은 程式 이외에 널리 섭렵하는 가운데 남의 학설을 표절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의심이 듣는다’는 것은 곧 『소주』의 諸家와 『어류』의 門人들이 이미 말했던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마음속으로부터 의문이 생겨서 의심나는 점을 나에게 묻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음부터는 반드시 침착하고 반복하되 반드시 자신이 주축이 되어야 옳을 것이다”²⁴⁾라는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정조는 상기한 바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터득하는 공부[深究自得之工]’를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던바, 즉 “그대의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뜻을 관찰해보면 바쁜 와중에 대충 적느라고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터득한 뜻[深究自得之意]이 없이 배운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병통[衣樣學言之病]이 있는 듯하니, 어려운 부분을 골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의문점을 일기 위한 논의도 아니다. 대저 스스로 터득하려는 취향[自得之趣]이 없으면 그 말이 대부분 의미가 없고, 깊이 탐구한 공부[深究之工]가 없으면 그 의심이 대부분 억지로 끌어다 맞춘 것에 불과하다.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밀했지만, 또 이렇게 덧붙여 당부하는 바”²⁵⁾라고 충고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정조는 이외에도 ① 경전해석에서의 ‘기이함을 좋아하는 병폐’ 및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려는 풍조’를 경계하였다. 즉 그는 “朱子의 경전해석은 天理의 밝고 맑음에 비할 수 있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諸子의 무리는 새로운 견해를 세우는 데 힘쓰기[務立新見]를 功名과 같이 한다. 공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공명으로 삼는 것은 蘇秦과 張儀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찌 우리 儒者들이 말을 붙일 수 있는 바이겠는가?”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王介甫[王安石: 펠자 주]의 論은 文人们이 일반적으로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文人之好奇]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근세에 處士 金昌翕[1653~1722: 號는 三鼎 펠자 주]이 千古의 隻眼으로 허여한 것이 와전된 말을 따르고 전한 것이라 하겠으니, 그 어그러지고 과격한지의 여부는 언급할 필요도 없

23)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p. 18b~19a “來說所謂 ……三層辨論 不害爲可備一說 而與聖訓本旨不襯貼 可謂別生閒意”;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21a “今此云云 俗所謂卓下得匙 似此講義 初不筆之書可矣”;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30b “多少計較 都是閒商量 沒繁要說底 都不如做底”;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34b “來說可謂無事中覓出有事者 何不深索而熟認 徒費閒漫說話乃爾耶?”

24)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24a “小註及語類 有雜錄之說話 今所謂起疑而問之者 卽不過程式外 博涉中獵竊者 卽疑云乎者 卽小註諸家語錄門人輩已說之疑 何可曰：‘自己心而起疑 因起疑而問於吾也？後必沈潛反復 必用自己機軸 極是極是。’”

25)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p. 32b~33a “來喻非不是矣 而觀其語意 似是百忙中潦草 無深究自得之意 有依樣學言之病 卽非揅難底問 又非會疑之論 大抵無自得之趣 則其言多無味 無深究之工 則其疑皆強覓 前既屢言 而又此附申。”

다”²⁶⁾고 혹평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 새로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질적 학풍에 대한 성토 역시 마다하지 않았다. ② 그는 초계문신들에게 학문을 힘에 있어 문득 엄습하는 ‘자포자기의 유혹’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던바, 곧 “『朱書』에 ‘100里를 가는 자는 90里가 절반이다’라고 하였고, 唐詩에 ‘다시 한 층루를 올라간다’고 하였으니, 대개 竿頭의 걸음에서 다시 나아가기를 요구한 말이다.이 마음이 소홀한 곳에 이 이치도 무너지는 것”이라든가 “개탄스럽구나, 그대의 질문이여! 이는 이른바 自棄하는 자이다.‘欲寡過未能으로 五字經을 삼아 일생 동안 수용하고자 한다는 그대의 말은 대망발이라고 할 만하다. 앞으로는 반드시 ‘必無過乃已’로 고쳐서 오자경을 삼음으로써 일생 동안 수용하는 데에 써도 써도 다향이 없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가?”²⁷⁾라고 권면하기도 하였다. ③ 정조는 후학들이 경솔하게 인물을 논평하는 풍조에 대해서도 엄히 경계한 바 있다. 즉 그는 “대저 顏子와 非有 간의 지위의 고하에 대해서는 본디 쉽게 말할 수 없”기에 “聖賢의 고저를 비교하는 것은 배우는 자에게 절실한 일이 아니”며, 또한 “善人의 淺深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적절한 설이라 할 수 없다”는 기본적 인식 하에, 특히 “朱子가 말하기를 ‘뒷사람이 종이 위의 말을 근거로 앞 시대 사람을 평하기를 아주 쉽게 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평생토록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행여라도 실천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지금 後生 小子가 학문의 방향도 잘 모르면서 입만 열면 有子와 여러 賢人의 우열을 말하곤 하니, 이 어찌 기당한 일이겠는가!”²⁸⁾라고 개탄한 바 있다.

(4) 獨自的 經傳解釋方法論의 提示

이상과 같은 正祖의 學問觀은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經傳解釋方法論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던바, 이에 그는 초계문신들에게 경전을 해석·이해하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째, ‘經文과 『章句』·『集註』를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태도’로서, 즉 ① 경문 및 『장구』와 관련하여 “책을 읽을 때는 ‘大文’[經文: 필자 주]과 『장구』의 설을 독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절대로 자기 생각을 그 속에 불쑥 집어넣어 그 위에 한 글자를 놓고 그 아래에 한 글자를

26)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8ab “朱子之釋經，比之天理明清，諸子聽瑩之徒，務立新見如功名，功名亦有許多般，此之爲功名，不過蘇張手段，此豈吾儒所可著跟處乎？”；『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9a “王介甫之論，難乎免於文人之好奇。近世處士金昌翕之許以千古隻眼，可謂從詣傳訛，乖激其否，不須說。”

27)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14a “朱書曰：‘行百里，半九十里’，唐詩曰：‘更上一層樓’，蓋言竿頭之步，更要更進也。.....而此心忽處，此理亦缺。”；『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6ab “慨哉，子之間也！是所謂自棄者。.....子云：‘欲以欲寡過未能，作五字經，爲一生受用云者，可謂大妄發。後必以必無過乃已，改作五字經，爲一生受用，用不盡之方，如何？’”

28)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5b “大抵顏子地位之高下，固不可容易說到”；『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19a “雖然較聖賢高低，非學者切務”；『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2b “至於善人淺深之間，未必的當底說也。”；『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1b “然朱夫子曰：‘後人據紙上語，指點前人，甚易爲力，吾平生服膺斯語，或恐不踐。今也後生小子，學未通方而開口便說有子諸賢之優劣，豈可乎哉！’”

놓지 말아야 한다. 비록 『小註』에 있는 先儒의 설이 혹 ‘大文’과 차이가 있고 『장구』보다 참신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거기에 눈과 마음을 붙여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여기에 온통 힘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빼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전을 읽을 때는 경전만을 읽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완숙되기를 기다려서 『장구』를 읽어야 하며, 이 밖의 것은 진정으로 德에 나아가기 전에는 모두 생략해도 된다. 『소주』 및 『어류』에는 잡다하게 기록해놓은 말들이 있는데, ……”라고는 “알기 쉬운 『장구』의 뜻도 이렇게 잘못 보면서, 또 어찌 『소주』의 득실을 논할 겨를이 있단 말인가?”²⁹⁾라고 경계한 바 있으며, ② 『집주』와 관련해서도 “무릇 『집주』 이외의 설은 모두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고 또 세밀히 따져 볼 것도 없다”, “『집주』와 『어류』의 두 설이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어느 설이 晚年の 定論인가? 당연히 『집주』를 준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주』에 이미 상세하게 밝혔으니, 어찌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는 『집주』에 실린 程子의 학설로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배우는 자에게 의당 이로움이 있을 것³⁰⁾이라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다.

둘째, ‘閒漫하고 지나친 穿鑿’에 대한 거부’로서, ① 이는 곧바로 “대저 글을 읽는 법에 있어서 의심을 품는 것은 본디 좋지만, 공연히 왜곡된 견해나 얕은 지식을 섞어서 허황되고 지나친 기교를 부리고자 한다”는 비판이나 “어찌 그로도 천착하는 것인가?”, “나마지 조항에서 범범하고 소홀한 곳은 쓸데없이 길기만 하고, 천착한 곳은 억측에 가까우니, 우선 그만두라”, “억지로 단계를 나누려하면 도리어 천착하게 된다”, “楊氏의 경우에는 한 가지 학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대가 ‘仁者는 靜의이고 知者は 動의’이라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보려 한다면 너무 천착하는 것[泥]이다”, “경전을 볼 때는 범범히 보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세세한 데까지 파고들 필요도 없다. ……쓸데없는 일에 공력을 들이는 것은 朱子가 무척 싫어했던 바”라고는 “朱張과 大連을 다시 논하지 않은 것은 또한 생략하는 뜻이다. 그대가 그들을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 까닭을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 천착하는 것[泥]이 아니겠는가?”³¹⁾라는 경계로 표현되었

29)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4ab “讀書貴在篤信大文章句之說而已。……切勿以吾意思、攬入其間，下一字於其上，添一字於其下。雖於先儒之說見在小註者，如或參差於大文，生新於章句，亦不可注眼著心看。須於此大家致力，必有收效之速見者”；『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p. 23b~24a “讀經傳，只看經傳。待其將熟，始看章句，此外都可略之於眞箇進德之前。而小註及語類，有雜錄之說話，……”；『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29a “章句易知之義，如是錯看，又奚暇論得小註得失乎？”

30)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9a “凡集註以外之說，都不必深索，亦不宜細究”；『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18a “集註語類兩說，同歟異歟？同則何說爲晚年定論耶？當以集註爲準”；『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20b “集註已詳之，奚煩剝說”；『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5a “若以集註程子之說，思量推究，則學者當有所益。”

31)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5a “大抵讀書之法，起疑固好，公然難以曲見淺智，務欲架鑿勝巧，……”；『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4b “耳順之不舉目官爲疑，何太穿鑿”；『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5b “餘條，泛忽處，近於拖長；穿鑿處，近於臆逆，且置之”；『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7a “強分層節，反歸穿鑿”；『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9a “至於楊氏，可備一說，而子欲以仁靜知動一般看，則太泥”；『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4a “看經傳不可泛忽，亦不必巧

고, ② 상기한바 지나친 천착의 행태가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바쁜 와중에 (『논어』를: 펼자 주) 대충 보아 넘기면서 정작 의심하지 말아야 할 점은 억지로 의심하여 고루함을 보이니, 탄식할 노릇”이라든가 “또 터무니없이 끼워 맞추어 억지로 변론하려 드니, 어찌 무척이나 구차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 말하는 것이 정미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도리어 자루하고 잘단 병통이 없지 않다”, “논한 비는 옳지만 본장 [『子路篇』 ‘子貢問曰鄉人皆好之章 펼자 주]의 뜻과는 무척 거리가 있다”, “어찌 억지로 어려운 질문을 하여 스스로 邶子가 年數를 계산한 것에 대한 경계를 범할 필요가 있겠는가?”, “氣質 이외에 다시 ‘習俗’이라는 두 글자를 짊어낸 것은 빼어나게 하려다 도리어 졸렬해지고 만 것[欲巧反拙]³²⁾” 등의 폐단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환기시켰다.

셋째, 이러한 입장은 또한 ‘訓詁學 및 考證學’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이어졌던바, 특히 정조는 ① “어찌 本이라는 한 글자를 융통성 없이 보고, 또 本이라는 한 글자를 大本과 始本으로 구별하기를 勉齋[黃欽: 펼자 주]의 설과 같이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른바 훈고의 학문이니,○ 는 聖人의 가르침을 도리어 어렵게 할 뿐 아니라 經書의 뜻에도 해가 되니,어찌 옛 모습을 그대로 지켜서 잊지 않는 쪽이 過失을 적게 하는 것만 같겠는가?”라든가 “나는 단지 반복해 와면서 조금이라도 체득하여 행하고자 할 뿐이요, 이 밖의 잔단 훈고[零瑣訓詁]는 모두 강구할 능력이 없다”³³⁾고 하여 훈고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② 동일한 이유로 “내가 깊이 경계하고 매우 미워하는 것은 明清時代의 考證學”이라는 입장은 명확히 하였고,³⁴⁾ ③ 나아가 그는 “이렇게 閒漫한 공부는 이른바 汪份의 무리가 열어놓은 것”이라든가 “程朱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汪份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자 後人們이 이를 따라 스승의 가르침처럼 우러르니, 이러한 곳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한다”³⁵⁾고 초계문신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④ “부디 汪份이 增訂한 『四書頭註』를 보지 말도록 하라”, “갑자기 永樂 연간의 群儒가 주워 모아놓은 本 [『四書頭註』: 펼자 주]을 가지고 이 밖에는 달리 正論이 없는 것처럼 보고 묻다니, 너무도 깊이 해

32)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4a “大抵言本，質在其中；言質始在其中，根與體皆然。何可滯看本一字，又於本一字，區別大本始本，如勉齋之說？是所謂訓詁之學，.....不但反晦聖訓，從而有害經義。.....曷若因其舊觀，守而勿失之爲寡過”；『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0a “吾於是只知三復飄誦，期欲一分體行，外此零瑣訓詁，都不能講究。”

33)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31a “又况吾所深戒而甚惡者，明清考證之學也。”

34)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8b “似比閒界工夫，所謂汪份輩皆之也”；『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2b “程朱未嘗如此說到，而汪氏忽爲此說，後人從以仰之如師訓，此等處須着眼看。”

아리지 못한 처사”라든가 “季札이 운운한 것 역시 汪份이 增訂한 『頭註』에 나오는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奇貨로 여기니, 이는 朱子가 말한바 ‘天理의 본원을 보지 못하고 功名에 나이가는 데 급급한 자’인 것”이라 경계함으로써 汪份의 『四書頭註』로 대표되는 고증학적 저술을 필두로 하여 여타 『存疑』, 『說叢』, 『四書蒙引』 등과 같은 텔정주학적 경학서에 대한 혹평과 배척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³⁶⁾

넷째, ‘논지의 과장이나 경솔한 주장에 대한 경계’로서, 이와 관련하여 정조는 ① “사람의 道理를 힘쓰고 鬼神을 공경하는 것에 天下의 허디한 道理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큰소리치며 농락하는 병통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거나 “경전의 뜻은 융통성 있게 보고 평탄하게 말하는 것[活看平說]이 귀한 법인데, 지금 그 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마치 말하기 어려운 듯이 하고, 禮字를 단단히 잡아 쥐고 양쪽 사이에서 한민히 노닐기를 사방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하니, 경전의 본뜻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³⁷⁾이라 논평함으로써 경전해석과 관련하여 ‘큰소리치며 농락하는 병통[大言籠罩之病]’이나 ‘장황하게 자신이 주장을 개진하는 경행[張皇其說]’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② “싫어함이 많고 게을리함이 많다”는 말은 어찌 그리도 생짜로 구분 짓는 것인가?”라든지 “지금 이렇게 운운한 것은 세속에서 이른바 밥상 밑에서 수저를 얹는다는 격이니, 이런 講義는 해당초 글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더구나 ‘小人은 下愚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책에서 본 것인가?”³⁸⁾라는 비판을 통하여 ‘독단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立說籠罩之病]’에 대하여 경계하였으며, ③ “경전의 뜻을 나누어 설명하는 데 있어서 篇註를 끌어 모을 필요도 없지만, 또한 어찌 멋대로 함부로 논하고야 만단 말인가? 다음부터는 모름지기 경계하라”³⁹⁾고 하여 특히 ‘멋대로 망론하는 폐단[匪妄論]’을 논박하였고, ④ “그대의 설에서 운운한 것은 너무도 명확하지 못하니, 훗날 학문이 진보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든가 “그대의 설에세 단계로 변론한 것은 한 가지 설이 되기에는 해롭지 않지만, 聖訓의 본뜻[聖訓本旨]과는 절실하게 들어맞지 않으니, 한가하게 엉뚱한 생각이나 한다[別生閑意]고 할 만하다.지금 이 聖人의 가르침은 시기별로 경계를 한 것이 단계가 매우 분명하여 한 글자를 보탤 수 없고 한 글자를 뺄

36)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6b “慎勿看汪訂四書頭註”;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28b “忽以永樂羣儒籠罩之本, 看作此外無他正論, 而提問之者, 尤可謂未深量之甚者.”;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8a “季札云云, 亦出於汪訂之頭註, 子乃得之, 以爲奇貨, 是朱子所謂「不見天理本原, 没汲以就功名者」也”;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9b “許魯齋以後學者生下來許大多枝葉, 甚至存疑等書出, 而有九思動時工夫之說, 誤人至此, 可歎可歎.”;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b “說叢蒙引之說, 若是循襲, 有何駁人好意思耶? 朱子嘗答潘叔昌之書曰: 「一種議論, 遷見卑狹, 令人擡頭不起, 吾於近日經學諸人亦云.」”

37)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1b “而‘務民敬神之包得天下許多道理’云者, 得無近於大言籠罩之病乎?”;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6b “經義貴在活看平說, 而今乃張皇其說, 有若語難, 硬把禮字, 爲邀遊兩間, 四面春風底樣子, 恐非經說之本意也.”

38)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43a “多厭多倦”云云, 何其生轡也?;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21a “今此云云, 俗所謂卓下得匙, 似此講義, 初不筆之書可矣. 况「小人可爲下愚」, 抑見於何書也?”

39)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9a “經義分說, 雖不必擗拾箋註, 亦何可徑情妄論乃爾耶? 後須戒之.”

수도 없다. 그런데 그때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혼동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매우 간결하지 못하다[太欠簡潔]. 경전의 뜻을 살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뜻[本旨]에 있어서는 절대로 등글등글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不可囫圇爲說]⁴⁰⁾라고 훈계함으로써 ‘횡설수설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였으며, ⑤ 이러한 맥락에서 ‘禘祭의 설에 대해서는孔子께서도 ‘알지 못한다[不知]’고 하셨으니, 공자가 알지 못하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안다고 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설명하여 침람되고 외람되다는 혐의를 보탤 수 있겠는가?’⁴¹⁾라고 응답하여 ‘불확실한 것이나 의심스러운 것에 대한 유보[闕疑]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조는 경전해석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또한 ‘맥락을 중시하는 태도’ 및 ‘용통성 있게 보는 법[活看法]’을 강조하기도 하였던바, 즉 ① “謝氏가 말한 ‘뜻이 있는 자’와 ‘뜻이 없는 자’의 志자는 ‘뜻을 세운다[立志]’와 ‘뜻을 이룬다[遂志]’의 志, ‘도에 뜻을 둔다[志於道]’의 志, ‘그 뜻을 구한다[求其志]’의 志,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한다[得志與民由之]’의 志, ‘뜻을 기다린다[繼志]’의 志, ‘뜻을 요약되게 한다[約志]’의 志와 대체는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다”라든지 “『논어』 한 편에는 ‘君子’라고 일컬은 것이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다. 범범히 칭하기도 하고 통괄적으로 칭하기도 하여 가리키는 바가 같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잘 살펴야 한다”⁴²⁾고 주의를 환기한 사례에서 긴취할 수 있듯이, 용어나 개념이 함축한바 ‘맥락에 따른 의미의 차이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② “모름지기 말에 엉매여 본래 뜻을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든가 “聖人의 말씀에는 각각 마땅함이 있지만 꼼꼼히 연구해보면 또한 서로서로 발명함이 있다. 반드시 각각[各]이라는 글자 속에서 서로서로[互]라는 글자를 보고 서로서로라는 글자 속에서 각각이라는 글자를 보아, 각각이라도 완전히 분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서로서로라도 한 덩어리가 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야만 會通하고 融合하는 묘미가 있게 될 것”⁴³⁾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특히 ‘말에 엉매여 경전의 핵심적 의리[第一等義理]를 왜곡하는 잘못’에 대해서 거듭 경계하기도 하였다.

40)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12a “至於來說云云, 太不端的, 更待後來學進, 徐議尙未晚, ……”; 『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p. 18b~19a “來說所謂 ……三層辨論, 不害爲可備一說。而與聖訓本旨不襯貼, 可謂別生閒意。……今此聖訓隨持垂戒, 層節甚明, 添一語不得, 減一語不得。子乃欲合少壯老混同爲言者, 太欠簡潔。看經義不當如此。……至於本旨, 則決不可囫圇爲說。”

41)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31a “禘之說, 子曰: ‘不知也, 夫子之所不知, 吾何敢曰: ‘有知, 而釋之如是, 說之如彼, 重增僭猥之嫌耶?’”

42)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17ab “至於謝氏‘有志」「無志’志字, 與‘立志’‘遂志’之志, ‘志於道’之志, ‘求其志’之志, ‘得志與民由之’之志, ‘繼志’之志, ‘約志’之志, 大同而小異耳”;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41b “論語一篇, 稱君子者不一。泛稱統稱, 所指不同, 當隨處詳究。”

43)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a “必須不以辭害義可也”;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32a “聖人之言, 各有攸當, 而細究之則亦多有互相發明。須於各字中看得互字, 互字中看得各字, 各而不至於破碎, 互而不至於囫圇, 然後方有會通融合之味。”

(5) 帝王學의 儒敎政治論의 展開

한편, 정조는 『魯論夏箋』에서 초계문신 徐俊輔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자신의 ‘君主的儒敎政治論’의 일단을 파력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군주’로서 평소 온축한바 수준 높은 정치적 경륜을 비록 단편적 형태로나마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바는 정조가 적어도 원칙적 입장에서는 ‘程朱學의 道德政治論’을 충실히 응호·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그는 무엇보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子貢의 질문이예! 이 장[『顏淵篇‘子貢問政’章 필자 주』]을 반복해서 읽노라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즈음에 사람을 격앙하게 만든다. ……평상시이건 변란에 처했을 때이건 어느 곳 어떤 일인들 참시라도 信義를 버릴 수 있겠는가? ……兵備가 갖추어졌더라도 신의가 없어서는 안 되고 食糧이 풍족하더라도 신의가 없어서는 안 되니, 평상시에도 이 도리를 지켜야 하고 변란에 처했을 때도 이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버리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할 것이니, 병비와 식량을 또 어찌 논하겠는가! 이 도리에 대해 안다면 변란에 처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붕우와 교제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든가 “信이란 上下가 서로 신뢰하는 것 [相孚]을 이른다.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천하에 이를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道德 중심의 理想主義的政治觀’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⁴⁴⁾ ② 정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몸이 바르지 않다면 그 政事를 어찌 논하겠는가? 康子의 질문이기 때문에 聖人의 대답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정사를 하는 도리는 또한 여기서 지나지 않는다. ……진실로 마음이 바르고 몸이 닦여진다면 집안이 가지런하지 않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천하가 평정되지 않는 것은 근심할 바가 아니다”라든지 “德으로 사람을 승복시키는 것이 義로써 사람을 제어하는 것보다 낫다. 덕이 있는 자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승복하고, 의로써 제어하는 자는 일이 모두 이치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치가 아닌 것을 가지고 끼어들지 못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정주학이 이상적 통치형태로서 특별히 강조했던바 ‘敎化 중심의 無爲而治的政治理念’을 적극 수용·고취하기도 하였다.⁴⁵⁾

둘째, 상기한 바대로 정조는 원칙적으로 ‘無爲而治’를 지향하는 정주학적 도덕정치론의 이념을 응호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동시에 ‘군주’라는 자신의 현실적 입장에서 결코

44)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p. 28b~29a “善哉。子張之問也！反復此章[『顏淵篇‘子貢問政’章 필자 주』], 令人激仰於答問之際也。……毋論處常處變，何處何事，而可以須臾去信乎？……兵焉而無信則不可，食焉而無信則不可，處常也是此道理，處變也是此道理。捨此則人不人而國不國矣。兵與食，又奚論哉！知得此箇道理，何有乎處變，何有乎與朋友交，又何有乎推此而治國平天下哉！”；『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31a “信者，上下相孚之謂也。不能相孚，則天下無可濟之事矣。”

45)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1ab “其身不正，其政奚論？康子也。故聖人之答如是矣。雖然爲政之道，亦無過此。……苟心正身修，則家之不齊，國之不治，天下之不平，非所憂矣。”；『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0b “以德服人，勝於以義制人。有德者心在言前，不言而人服。義制者事皆當理，不敢以非理干。”

이에 맹목적으로 고착되지 않았던바; 이러한 그의 입장은 곧 ‘帝王學的 權道政治論’의 틴력적 수용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그는 기본적으로 군주의 지위[君位]를 “天地의 낳고 낳는 德을 체현하여 萬物을 位育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천하국가를 소유한 자가 어찌 학문이 독실하지 못하고 氣質이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평계되며 장엄함으로써 임하는 도리[莊徳之道]에 소홀히 할 겨를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바, 이를 통해 그가 ‘權道的 君主觀’, 즉 당시 君德의 格正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던 정주학적 도학정치론의 상투적 논리 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였음 역시 간취할 수 있겠다.⁴⁶⁾ ② 정조는 帝王學의 요체와 관련하여 “사람을 아는 것[知人]은 帝도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곳[政最致力處]이다”, “또 ‘임금은 小人을 살피기를 배우는 자가 佛老를 분별하듯이 해야 한다는 말도 참으로 옳다’라든가 ‘무릇 임금이 사람을 쓰는 문제는 본디 용납하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하지만, 용납하지 않는 바가 없는 중에서도 權衡이 있어야 한다. 지나친 자를 억제하고 미치지 못하는 자를 끌어올리며 탐욕스런 사람은 청렴하게 하고 나약한 사람은 뜻이 확고해지게 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주어 民生이 서고 德으로 인도하여 백성이 따르도록 한다[立之斯立, 道之斯行]면 子夏와 子張의 주장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舜 임금이 兩端을 잡아 그 中道를 백성에게 쓴 것도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는가?’⁴⁷⁾라고 주장함으로써 군주의 인사정책의 기본원칙, 즉 ‘知人’ 및 ‘用人的 權衡’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③ 정조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전제한 위에서, 『孟子』에서는 堯舜의 道를 말하고 『書經』『君陳』篇에서는 정치를 하는 本體를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근본에까지 미루어가는 논리이다. 그러나 만약 이를 빌미로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자라면 국정을 행하고 世道를 맡음에 있어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미땅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마 그럴 리는 없을 듯하다”라든가 “封德彝[封倫 德彝]는 字임. 渤海人으로 唐나라 때의 權臣: 필자 주]는 隋나라에서는 말주변만 좋았으나 唐나라에는 충성을 다하였다”고 평가함으로써 은연중 도덕성에만 매몰되지 않는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人才觀’의 일단을 개진하기도 하였다.⁴⁸⁾

46)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40b “宮是君位也。體天地生生之德，位育萬物。……”；『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5b “有天下國家者，何暇談諸學問之未篤，氣質之未矯，而忽之於莊徳之道乎？”

47)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7a “知人。惟帝其難之。此政最致力處”；『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13b “又以「人君之審小人，當如學者之辨佛老」，是哉是哉！”；『魯論夏箋』4(『弘齋全書』, 卷125), p. 29a “夫人君用人，固當無所不容，而無所不容之中，亦當有權衡。過者抑之，不及者進之，貪夫廉，懦夫立，使一世「立之斯立，道之斯行」，則於子夏子張，可謂捨短取長，而大舜執兩端而用其中於民，何以過此？”

48)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37b “孟子言堯舜之道，君陳說施政之體，此皆推原之論。若以此謂「有孝弟者，便可以行國政任世道，無所處而不當」，則恐無是理”；『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14a “封德彝俟於隋而忠於唐。”

(6) 其他: 經學과 經世學의 接點

이미 기술한 바대로, 正祖는 『魯論夏箋』으로 대표되는 초계문신들과의 일련의 講經活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經傳의 奧義를 深思窮究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당시 조선의 정치현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인식의 일단을 작·간접적으로 퍼력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 정조의 ‘朋黨政治’의 폐단에 대한 부정적 입장 및 대안적 정국구상에 대한 우회적 표명이 바로 그것이다. 즉 ① 그는 英祖 아래의 탕평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老倫辟派를 중심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었던 당시의 ‘봉당정치’의 실상과 관련하여 “옛날의 君子는 두루 사랑하고 偏黨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른바 군자는 편당하고 널리 사랑하지 않는다. 鄭陽子의 봉당론이 나오면서 널리 사랑하는 군자들은 龍斷하는 蹤丈夫로 귀착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편당하지 않는 부류를 모조리 취함으로써 장차 군자의 참된 무리가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도록 하고 파리나 개처럼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이익을 오로지 하고 그 권세를 훔치니, 어찌 이렇게 한단 말인가?”⁴⁹⁾라는 탄식을 통하여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② 이러한 정조의 현실인식은 자연스럽게 “程夫子가 말하기를 ‘天德과 王道의 요지는 단지 謹篤에 있을 뿐이니, 어떤 일인들 그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자는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항상 차분하고 편안하여 마음이 넓고 몸가짐이 점잖다고 하였다. 이 장[述而篇] ‘子曰君子坦蕩蕩章’ 필자주]의 ‘坦蕩蕩 세 글자를 반복하여 음미하노라면, 자연히 일단의 春風和氣 속에 있는 것 같아진다’⁵⁰⁾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던바, 이는 곧 ‘蕩平政治’에 대한 그 자신의 의지와 상상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겠다.

둘째, 정조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신료들의 일반적 행태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일침을 기하였다. 즉 ① 그는 “그대의 설에서 말한 것은 모두 옳지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는 달라서 幾諫이 直諫만 못하다. 다만 신하도 大臣과 小臣의 구별이 있으니, 대신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고 소신은 얼굴을 범해도 되는 것”이라든가 “신하의 도리는 마땅히 王陵[漢나라 때의 名臣: 필자주]을 正道로 삼아서 바르게 諫諫해야 하니, 바르게 간언하는 것이야말로 法語에 가까운 것”⁵¹⁾이라는 주장을 통하여 신하의 기본도리로서 ‘直諫을 거듭 강조하

49)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8b “古之君子，周而不比；今之所謂君子，比而不周。歐陽子朋黨之論出，而周者將歸龍斷之蹊丈夫。今欲一切取不比者流，將使君子之真朋不容於時，蠅營狗苟，朝東而暮西者，專其利而竊其勢，當如之何爲是耶？”

50)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43b “程夫子若曰：‘天德王道，其要只在謹獨，甚事不然？」而夫子又若曰：‘君子循理，常舒泰，心廣體胖。」此章[述而篇] ‘子曰君子坦蕩蕩章’ 필자주] ‘坦蕩蕩’三字，反復玩味，自然如在一團春風和氣中。”

51) 『魯論夏箋』2(『弘齋全書』, 卷123), p. 13a “至於來說中云然皆是，而臣之事君，異於子之事父，幾諫不若直諫，但臣亦有大臣小臣之別，大臣格非，小臣犯顏可；”『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15a “人臣之道，當以王陵爲正，正諫也可，正諫近於法語。”

는 가운데, ② 정조는 또한 “夫子가 말한 ‘大臣’은 실로 지금에 보기 어렵지만, 子路와冉有를 ‘具臣’이라 한 것을 보면 그 뜻이 크다고 하겠다. 무릇 자로의 賢能과 염유의 재주를 가지고도 겨우 具臣의 반열을 채울 뿐이라면 남의 신하가 되어 그 도리를 다하는 것[盡人臣之道]을 어찌 쉽게 말하겠는가! 무릇 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진실로 夫子의 이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둔다면, 그 공열이 뛰어나 남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손바닥을 뒤집는 일처럼 쉬울 것”⁵²⁾이라 훈계함으로써 당시 조정의 신료들에게 人臣의 직분에 대한 새로운 각성 및 분발을 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4. 結論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正祖의 『魯論夏箋』에 나타난 經學思想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조는 “나는 經傳에 대해 말하기를 고기만큼이나 좋아한다”⁵³⁾고 공언할 만큼 好學君主를 자부하는 가운데, 또한 당대 최고의 通儒이자 碩學으로서 평소 자신의 학문적 온축과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표명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적으로 ① ‘帝王學의 『論語』觀’의 천명, ② ‘親程朱學의 經學觀’의 천명, ③ ‘切問近思의 實地工夫’의 강조, ④ ‘獨自의 經傳解釋方法論’의 제시, ⑤ ‘帝王學의 儒敎政治論’의 전개, ⑥ 당시 ‘朝鮮의 政治現實에 대한 經學的 批判’의 제기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정조의 이러한 『論語』經學思想에는 내부적으로 일견 모순적인 양면성 또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보수적 측면’으로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정조가 특히 자신의 학문론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朱子는 곧 聖人’이라는 朱子道統主義를 견지하는 가운데,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경하고도 교조적인 ‘程朱學 崇拜의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입장은 ‘陸王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시 조선에 풍미하던 외래사조, 즉 明清의 考證學, 稗官文學, 西學 등의 흐름에 대한 경계와 배척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② 그는 또한 자신의 帝王學의 儒敎政治論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원칙적 입장에서는 ‘程朱學의 道德政治論’의 입장을 충실히 수용·옹호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종의 ‘진보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적어도 『노론하전』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帝王學의 權道政治論’의 탄력적 수용이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당시 君德의

52) 『魯論夏箋』3(『弘齋全書』, 卷124), p. 23b “夫子所謂大臣，固難得見於今，而以子路冉有謂之「具臣」，其義可謂大矣。夫以子路之賢，冉有之才，僅得充具臣之列，則為人臣而盡臣道，豈可易言哉！凡今在廷之臣，苟能以夫子此訓少畱意焉，其功烈之卓乎難及，其如反掌乎？”

53) 『魯論夏箋』1(『弘齋全書』, 卷122), p. 1a “予嗜於談經，若芻蕘之悅也。”

格正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던 程朱學의 道學政治論의 상투화된 논리에 대하여 일정하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도덕성에 매몰되지 않는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정국구상 및 정치적 안목 또한 설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상기한바 정조의 『논어』경학사상이 노정하는 모순적 양면성은 곧 그의 사회적 지위가 내포했던 양면성이자 또한 그에게 부과되었던 시대적 과제의 양면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정조는 일차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고 당시 무너져 가던 조선왕조의 명분과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체제의 유지와 왕조의 중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졌던 ‘朝鮮의 君主’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변화된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직면하여 새로운 현실개혁의 논리와 방법을 전진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이를 체제 내에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通儒이자 先覺者’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그의 시대적 고민은 “帝王의 학문은 또 布衣의 학문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만일 心性理氣의 名目 사이의 낚은 담론에만 얹매인다면 이것이 어찌 실제를 먼저 힘쓰고 꾸밈을 뒤로 미루는 뜻이겠는가. 한갓 종이 위의 空言만 강론한다면 혹 ‘蒼生은 묻지 않고 鬼神의 일을 물었다[不問蒼生問鬼神]’는 혐의가 있지 않겠는가?”⁵⁴⁾라는 토로를 통해서도 잘 간취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노론하전』을 통하여 정조가 표명했던 경학사상은 무엇보다 당시 그의 포괄적인 정국구상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접근·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正祖, 奎章閣, 抄啓文臣制度, 抄啓文臣, 論語, 魯論夏箋, 經學, 程朱學

접수일(2009. 12. 1), 심사시작일(2009. 12. 2), 기재확정일(2009. 12. 9)

54) 『正祖實錄』, 卷48, 22年 4月 己亥條.

【参考文獻】

1. 문헌자료

『正祖實錄』

『弘齋全書』[『經史講義』8~12(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홍재전서』8), 『魯論夏箋』1~4(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홍재전서』14), 『日得錄』9(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홍재전서』16)]

2. 저서 및 논문

金文植, 1996 『朝鮮後期經學思想研究』, 一志社.

鄭玉子, 1988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Abstract>

King *Jeongjo*(正祖)'s Comprehens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Summer*(『魯論夏箋』) –

Jeong, Il-gyun *

In this paper, I examine briefly the contents and character of King *Jeongjo*(正祖)'s comprehens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in his last years, expressed especially in his *Discussions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Summer*(『魯論夏箋』). In this book, he made a display of his profound Confucian scholarship and statecraft as a distinguished Confucian scholar and the king of the day. The main contents of it are as follows: ① King *Jeongjo* elucidated his original reinterpre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systematic and practical Confucian statecraft and the reinforcement of sovereign right. ② He firmly expressed his dogmatic beliefs in the Learning of *Cheng Yi* and *Zhu Xi*(程朱學) in his capacity as a 'king and master'(君師) deliberately and repeatedly with his main political intention in order to restore the moral obligations and public order of the late *Joseon* dynasty(朝鮮王朝)'s society through a series of forum of *Chogyemunsinjedd*(抄啓文臣制度, The Royal Confucian Reeducation System of Civil Ministers holding a Junior Position) established as an annex in *Gyujanggak*(奎章閣, The Royal Academic Institute for the National Compilation). ③ He laid special emphasis on the Confucian learning of earnest ques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to *Chogyemunsin*(抄啓文臣, The Junior Civil Ministers under the Royal Confucian Reeducation System). ④ He presented his unique methodologies of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of Confucian Classics includ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to Chogyemunsin. ⑤ Lastly and on the other side, he not only developed his independent political theories of Confucian kingcraft, in which he refused to plac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olute trust in Neo-Confucian moral politics blindly, but also on the basis of them, he criticized and wanted to reform the political situations of the then *Joseon*(朝鮮) regime prudently. In conclusion, King *Jeongjo*'s thoughts of Confucian scholarship and kingcraft mentioned above seem at a glance to have some logical inconsistencies in contents. But these inconsistencies should be appreciated to be derived from his dual and dissonant social standings, i.e. 'the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an enlightening Confucian forerunner of the day'.

Key Words : King *Jeongjo*, *Gyujanggak*(The Royal Academic Institute for the National Compilation), *Chogyemunsinjedo*(The Royal Confucian Reeducation System of Civil Ministers holding a Junior Position), *Chogyemunsin*(The Junior Civil Ministers under the Royal Confucian Reeducation System), *the Analects of Confucius*, *Discussions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Summer*, the Learning of Confucian Classics(*Jing xue*), the Learning of Kingcraft, the Learning of Cheng *Yi* and *Zhu Xi*, the Confucian Learning of Earnest Ques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Neo-Confucian Moral Politics.